



추석 대목 앞둔 전통시장 추석 명절을 앞둔 11일 오후 광주 광산구 비야5일시장에서 손님들이 장을 보고 있다. /뉴스시스

## 한가위 앞둔 광주 전통시장 '활기'

제수용품 준비 양동시장, 명절 분위기 '인산인해'

"사람 냄새는 반갑지만 주머니 사정은 어렵네요." 민족의 대명절 추석 연휴를 코앞에 앞두고 광주지역 전통시장이 손님들로 붐볐다. 오랜만에 찾아온 장날 대목에 상인들은 있는 힘껏 호객에 나서며 한편 손님들은 고물가가 속한 품이라도 아끼기 위해 발품을 팔았다.

11일 오전 찾은 광주 서구 양동시장은 한때 발디딜 틈 없이 붐비면서 명절이 다가왔음을 체감할 수 있었다.

제철 과일들이 소쿠리에 담겨 진열되는가 하면 제삿상에 오를 생선을 다듬는 상인들의 손놀림이 분주했다. 한껏 숙성된 여름 생선 민어는 총혈된 눈을 부릅뜬 채 전장을 바라보고 있었다.

제수용품 가게들은 이날 막바지 택배 접수를 앞두고 흥어를 써느라 여념이 없었다. 두툼하게 썰린 흥어가 재빨리 포장되고 냉장실로 옮겨지는 사이 가게 앞에서는 손님과 주인 사이 흥정이 이뤄졌다.

가게 주인이 1만원 짜리 미국산 흥어 500g 한 팩과 5만원 짜리 전북 군산에서 잡아올린 흥어 500g 한 팩을 보여주자 '질레산은 없느냐'는 손님의 질문이 돌아왔다. 가게 주인은 냉장고에서 한 팩 3만원짜리 질레산 흥어를 꺼내면서 '물량이 없다'고 하소연했다.

이른 추석을 앞두고 서둘러 시장에 나온 황금빛 배와 붉은 빛 홍도가 손님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지만 많은 구매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지난해부터 솟구친 가격이 내려가지 않았고 그마저도 상태가 좋지 않은 것들이 많이 보인다는 이유다.

같은날 장이 열린 광산구 비야5일시장에서도 불경기 여파를 겪는 상인들의 울상이 이어졌다.

특히 명절 대목을 앞둔 수산물 코너는 기후변화 직격탄을 맞았다. 수온 상승으로 어획량이 급감하면서 조기·민어·병어·오징어 가격이 줄줄이 올랐기 때문이다.

야채·과일 값 고공행진에 구매 손길도 줄었다. /김도기 기자

## 광주 광천권역 도시철도·BRT 함께 달린다

대중교통·자전거·보행 중심의 미래 도시로 추진  
 상무광천선 2032년 개통...국비 4155억 확보 총력

대형 복합쇼핑몰 2개가 동시에 건설돼 교통대란이 우려되는 광주 광천권역에 도시철도와 간선급행버스(BRT)가 모두 도입된다.

광주시는 또 광주전 상부에는 입체형 보행 전용교를 구축해 광천권역을 대중교통·자전거·보행(대자보) 중심의 미래 도시 시범모델로 구축할 계획이다.

강기정 시장은 11일 오전 시청 1층 시민홀에서 복합쇼핑몰 '더현대 광주'(전방·일신방직 부지)와 '아트 앤 컬처파크'(터미널 부지) 개발 사업으로 인한 광천권역 교통난 해소 대책을 발표했다.

광천권역 교통대책의 핵심은 대중교통과 자전거, 보행 중심의 도로 개편이다.

광주시민과 외지인들이 승용차를 이용하지 않고 광천권역에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도시철도 '상무광천선'과 급행버스가 모두 도입된다. 상무광천선 노선은 도시철도 1·2호선과 광주~나주 광역철도 환승역인 상무역에서 출발해 기아자동차와 종합버스터미널을 거쳐 방직공장터와 신안동을 지나 광주역 후문으로 연결된다.

상무광천선은 도시철도 2호선 공사 방식과 다르게 지하터널(NATM) 공법으로 추진해 시민 불편과 소상공인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광주시는 올해 말까지 주민공청회와 시의회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하고, 내년 상반기에 국토부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승인, 기재부 예비타당성 등을 거쳐 2032년 완공이 목표다.

상무광천선은 지난 5일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국토부에 긍정적 검토를 지시해 사업 추진

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관건은 수천억원 규모의 사업비 확보 방안이다. 광주시는 총 사업비를 6925억원으로 추정하고 국비 4155억원 확보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신속성·정시성·대량수송 능력을 갖춘 급행버스도 연결된다.

현재 백운광장~광천사거리~광주희망병원 10.3km 구간이 추진되고 있지만 광주시는 용봉·매곡지구, 광주공고 방면으로 노선 변경을 요청해 2027년 하반기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도시철도 상무광천선 개통 전에는 광천권역의 급증하는 대중교통 수요를 대응하기 위해 도심급행버스가 도입된다.

문흥~각화동~광주역~광천동~상무역~공화동~송정역(17km)을 운행하는 1노선과 일곡~용봉동~전남대~광천동~백운광장~광주대~효천1·2(18km) 2노선, 첨단3~첨단2~유촌동~광천동~풍암지구~급호지구



(15km)3노선, 첨단~수원~운남~광천동~ACC역~조선대~학동(20km) 4노선을 고려하고 있다.

쇼핑몰을 편하게 걸어다닐 수 있도록 기아차사거리에서 방직공장터까지 1.2km 구간은 보도가 확장되고 광주전 상부에는 '입체형 보행 전용교'가 건설된다. /김도기 기자

수능 광주 1만6846명·전남 1만3941명 응시  
 지난해 수능 대비 광주지역 4.7%·전남 3.6% 증가

오는 11월14일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광주지역 응시생은 총 1만6846명, 전남은 1만3941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수능보다 소폭 늘어난 수치다.

광주·전남교육청은 고3 재학생 증가 속의대 정원 증원·서울 16개 대학 정시 확대 등에 따른 졸업생·기타 응시자 증가가 올해 수능 응시생 증가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11일 광주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6일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광주지역 응시원서 접수 마감 결과 총 지원자는 1만6846명으로, 전년보다 757명(4.7%) 늘었다.

이중 재학생은 전년도 1만1112명 대비 572명(5.1%) 증가한 1만1684명(69.4%)으로 나타났다. 졸업생은 전년도 4332명보다 88명(2.0%) 늘어난 4420명(26.2%), 검정고시생 등

기타 지원자는 전년도 645명 대비 97명(15.0%) 증가한 742명(4.4%)으로 집계됐다.

전남지역의 경우 전년 대비 478명(3.6%)이 증가한 총 1만3941명이 응시했다. 응시자 중 재학생은 지난해보다 458명 늘어난 1만1192명(80.3%), 졸업생·기타 지원자는 지난해보다 20명 늘어난 2749명(19.7%)이 원서를 접수했다.

올해 전국 수능 지원자는 52만 2670명으로 전년도 50만4588명보다 1만882명(3.6%) 증가했다.

/조선주·김 호 기자

즐거운 한가위 되십시오.  
 -호남매일 임직원 일동-  
 추석연휴 휴무로  
 16~20일 신문 쉽니다.

## 선물하고 싶은 한가위 행운모시잎송편

20개  
12,000원

40개  
24,000원

60개  
36,000원

선물세트 24,000원(40개) / 36,000원(60개) / 60,000원(100개)

\* 냉동송편(25개) 12,000원  
 \* 케이크 (대)80,000원 / (중)50,000원  
 \* 한봉지 1,200원

썩인절미, 보리개떡, 앙금절편(굳지않는앙금절편)  
 팔시루떡, 백설기 주문 해 주세요

**주문전화 010-2020-8302**  
 계좌번호 (농협) 356~0857~3500~23

**약밥전문**